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감리 '빵집'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공감리자로 진행하고 있는 대죽산단-서산G/5 직공급 2차 공사가 지역주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CTN 취재진은 지난 8일 제보자가 의뢰한 서산시 대안읍 망일산로에 진행되고 있는 가스관 매설 공사 현장을 찾았다.

심한 황사와 미세먼지에 가뜰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와 소음, 대형 공사 차량의 운행으로 짜증 이 폭발 직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농기계 등이 운행되어야 할 도로구간마다 대형 공사 차량의 운행과 파헤쳐진 도로구간 등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대죽산단-서산G/5 직공급 2차, 주민 고통 '호소' 먼지·소음·대형 공사 차량 등

주민 A는 “공사수준이 이 정도로 후진국 수준인 줄 몰랐다”면서 “아무리 농촌 마을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주민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발주처와 시공감리자, 서산시 등에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농토로 가기 위해 반대편 차가 지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도 때도 없이 발생 되는 비산먼지로 인해 창문조차 열 수 없고, 빨래조차 밖에 널 수 없는 처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B는 “대부분 공사를 진행하면 한쪽에서부터 진행되는 데 이곳은 마을 중간에서 시작하는가 싶더니 이제는 도로 초입에서 진행되는 등 정신이 없다”고 말하고 “시공사가 몇 개인지는 모르나 서로 경쟁하듯 진행하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 마을의 순진한 사람들만 있다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밀어붙이듯 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공사구간에 대해 시공이 표준 설계도면

에 의해 100%로 진행되었는지 이제는 주민이 공사감독관으로 나서서 확인한 후 잘못이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재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스관을 묻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하나’ 할 정도로 곳곳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하나의 예로 관매설시 모래와 골재 등이 제대로 들어가는지도 의문이지만 다집도 엉성하게 이뤄진 채 임시포장이 진행되고 있다”고 부실공사 의혹마저 제기했다.

이에 대해 CTN은 주민들이 제기한 생활불편 해소와 부실공사 의혹 등에 대해 취재할 방침이다.

/한성진 기자

충북 민·관·정,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쟁취 나섰다

충북선 정하건널목 일원에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개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안(6월 예정)에 반드시 반영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를 쟁취하기 위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충북선 철도 정하건널목 일원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시종 충북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정준순 국회의원, 박문희 충북도의회의장,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을 비롯해 민간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인원 100명

미만 준수,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선언문 낭독, 향후 활동계획 등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2일 인터넷으로 개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는 충청권 광역철도가 청주를 패싱하는 것으로 발표되어 충북도민과 청주시민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참석자 인사에서

“대전-세종-진천-안성-동탄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에서 유독 85만 청주만 도심 통과가 패싱됐다”면서 “허울뿐인 광역철도가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6월에 최종 확정 예정으로 최선을 다해 정부에 목소리를 내면 청주도심 통과가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시민대책위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대신에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는 노선을 일방적으로 담아 발표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실망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여당,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충북도와 청주시의 이행을 촉구하고 끝내 반영되지 않을 시 내년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을 엄중히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범시민대책위 주관으로 ‘청주시민들도 도심에서 광역철도를 타고 세종, 대전, 수도권 등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v.kr/petitions/597990)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30일 이내 20만 명이상이 동의해야 정부 및 청와대가 답변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철우 기자

전국 최초 '충남형 이재민 구호 체계' 구축

양승조 지사, 전 시군 및 민간숙박시설과 임시주거시설 지정 협약 체결

충남도가 각종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독립된 임시주거시설을 사전에 제공하는 맞춤형 선진 구호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7일 도청에서 15개 시군 민간숙박시설 대표,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 등과 함께 '충남형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지정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태풍과 폭설 등 각종 재난에 의한 이재민이 발생할

시 독립된 임시주거시설을 사전에 지정함으로써 이재민에게 신속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는 기존 마을회관이나 학교, 관공서 등 집단 임시주거시설에 이재민을 수용하는 단편적 방식을 한 단계 뛰어넘은 것이다.

이재민이 독립된 임시주거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생활 보호는 물론, 위생관리와 집단 감염 예방 차단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도는 이번 협약에 96개 업체가 참여한 만큼, 재난 발생 시 1만 39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약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숙박시설은 이재민 발생 시 해당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즉시 전환·운영한다.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운영 기간은 60일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 피해 및 복구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60일 이상은 지난해 4월에 수립한 임시조립주택 설치계획에 따라 임시조립주택을 설치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주거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도와 숙박시설 대표,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나해 여름 오랜 장마와 폭우로 1,354세대, 2,84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이 중 94세대 183명의 이재민이 임시 주거 시설에 머물렀지만, 사생활 보호는 물론, 심신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족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전국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매우 의미가 남다르다”며 “재난단계별 숙박시설 가용상황 등 시군의 현장 상황을 고려, 민간 숙박시설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순신 기자

당진시, '아동친화 환경조성 우수' 충남 유일 선정

제99회 어린이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아동권리 증진 유공 인정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당진시(시장 김홍장)는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이해 '아동친화적 환경조성 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아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충남 도내 유일 수상이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표창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전국 지자체(52개도시) 중 아동의 권리 증진 및 건강한 성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모범 지자체에 수여한다.

당진시는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6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민관 협력체계 마련 등 아동 친화적 기반 구축·실현으로 지난 2018년 3월 충남도내 2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인증 4년차로 2022년 상계 단계인증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에 있으며, ▲아동참여위원회(3기, 50명) 및 놀이환경 시민조사단(2기, 35명) 확대 운영 ▲아동 여가놀이 프로그램(반짝 놀이터 등) ▲아동학대에 방인식개선 및 아동권리 교육 ▲수다박스(청소년 카페) 개관·운영 ▲아동·청소년 부상교통 지원 ▲오봉지 생태공원 조성 등을 중점사업으로 아동 권리(놀이 권리, 참여할 권리, 안전 성장 권리 등) 증진 및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김홍장 시장은 “앞으로도 우리시는 아동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동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기금현 기자

예산군, 식품 안전관리 '충청 유일' 우수기관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1년도 식품 안전관리 평가 결과

예산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1년 식품 안전관리 평가'에서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식품안전관리 평가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관리, 식중독에 방관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 3개 분야 22개 지표에 대한 평가로 진행된다.

식품 안전관리 분야는 △업체 점검 및 적발률 △현장 보고 장비 활용률 △민원 기한 내 처리 비율 △소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수 등 13개 지표, 식중독 예방관리 분야는 △식중독 발생 관리율 △식중독 예방 교육 실적 △식중독 예방 홍보 실적 등 5개 지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분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용률 등 4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군은 지역민의 식품위생 안전을 위해 위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노력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식품위생 관리로 지역민과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용관 기자

홍주성역사관 개관10주년, 특별기획전 개막

2012년 발굴 확인된 홍복읍 석택리 유적 주제 55점 전시

홍성군이 홍주성역사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고대 마한시대 홍성의 옛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특별기획전 '석택리, 홍성의 마한을 기억하다!'를 개최한다.

지난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기획전은, 홍주성역사관 개관 이후 처음으로 우리고장에서 발굴된 유적을 주제로 기획됐으며, 국립부여박물관의 협조를 받아 유물을 대여하고, 석택리 유적의 경관을 디오라마로 복원하는 등의 준비를 했다.



군에 따르면 홍복읍 석택리 유적은 2012년 충남도청 이전으로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원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주거, 의례, 분묘, 생산공간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환호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대규모 취락으로 발견 당시부터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당시 석택리 유적의 발굴로 문헌상에 기록된 마한시대의 홍성을 뒷받침해줄 고고학 자료들이 많이 출토되어 우리지역 마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었으며,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홍성의 고대사 복원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

를 바탕으로 홍주성역사관은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생소한 홍성 고대사부터 근현대까지의 생활상의 변천모습을 전시콘텐츠로 표현해 볼거리를 풍부하게 조성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유대근 소장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와 연계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내외 원삼국시대 최대 환호취락 유적으로 평가되는 석택리 유적의 발굴이 다시 진행되고, 홍성의 고대 마한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주민들의 역사관 관람을 독려했다.

/한성진 기자

제천시, 도심형 게스트하우스 대박행진

도심관광 기반을 구축으로 한 게스트하우스 조성 인기



제천시가 도심·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도심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개관한 게스트하우스가 대박행진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시범운영중인 목화여관을 제외하고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염연초하우스와 직척폭폭999 게스트하우스는 개장한 이래 주말에는 대부분 만실이며, 주중 평일에도 객실 이용률이 50%를 웃돌고 있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5월 예약현황도 주말에는 대다수의 객실이 예약이 완료되어, 제천주민이나 인근 주민들은 타지 관광객을 위해 주말 이용 자제를 당부하

는 등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코로나19 시대에 이례적인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이유로 게스트하우스 3곳이 각각 저마다의 특색과 취향이 있어 다변화된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대중적인 가격에 지역의 문화와 스토리가 녹아 있어 다양한 숙박객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함 없다고 시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휴식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체류형 관광의 구심점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채철식 기자

옥천군, 2021년 군정발전 제안 공모

옥천군에서는 군정시책 발굴과 제도 개선사항 등 발굴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모집하는 '2021년 군정발전 제안 공모'를 5월 1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다.

옥천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 분야에 대해, 옥천군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제출된 제안은 경제성 및 능률성, 창의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항목별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1명 70만원, 장려 2명 각 50만원, 노력상 3명 각 30만원, 참가상(채택) 50명 각 3만원 등 우수자를 선정하여 시상과 함께 해당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상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불체택 건에 대해서도 예산범위 내로 1만원 이하 기념품을 증정할 예

정이다.

제안의 제출은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직접 작성하거나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방문(옥천군청 자치행정과, 043-730-3184)을 통해 제출 가능 하다. 신청서 양식은 국민신문고→'공모제안' 또는 옥천군청 홈페이지(https://www.oc.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공모 제안으로는 접수된 제안은 총 179건이며, 그 중 7건이 채택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안 공모를 통해 코로나19를 대비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과제 발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국 기자